중국, IPTV 표준 제정 '발빠르다'

STB표준 난립 활성화 '장애' 판단 … 독자 'AVS' 지원說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스, yjpak@cellular.co.kr))

표준 난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IPTV 서비스 관련, 중국 정부가 나섰다. 신식산업부가 직접 나서 IPTV 활성화를 위한 표준 마련에 돌입한 것.

이미 IPTV 서비스를 시행 중인 중국에서는 현재 관련 업체별 표준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에서 나서 이를 조율, IPTV 관련 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업체별로 각종 다양한 셋톱박스 표준을 앞세우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디지털TV(DTV)를 육성, 디지털TV 산업을 대폭 활성화시킬 방침이었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TV에 대한 논란은 이 와중에 발생했으며, 중국 내외에서 IP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나서 올해 안 표준화 제정 방침을 밝힌 것.

지난해 중반에는 IPTV 표준 제정 작업을 위해 신식산업부 주도로 중국통신표준화협회가 'IPTV 특별팀'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현재 IPTV 관련, 전체적으로 60~70개 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신식산업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 안 이들 가운데 18개 항목의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IPTV 표준 1차 심사가 종료돼 제시된 6개 표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식산업부 통신연구원의 장린토우 수석 엔지니어는 최근 IT 전문지 '통신세계'(CWW 발행)가 주최한 '2006년 IPTV 발전 포럼'에서 올해 안 IPTV 관련 18개 항목의 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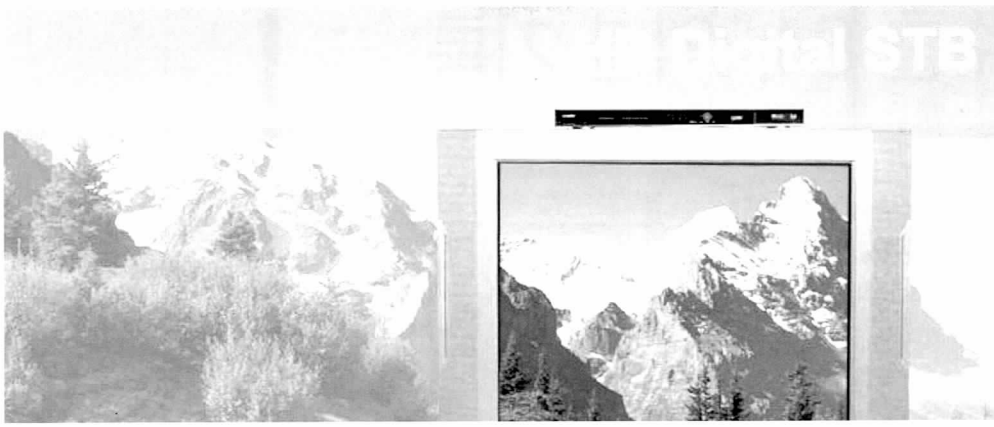
장 수석 엔지니어는 이날 발표를 통해 "IPTV는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융합의 돌파구를 여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국통신표준화협회가 주관해 3일간 실시된 1차 심사에서는 MPEG-4, MPEG-2, H.264, AVS(Audio Video Coding Standard) 등 6개 영상 처리 기술 관련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영상처리는 IPTV에 있어 핵심 기술로 현재 중국 내에서는 특허사용료가 최종 상용화 표준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6개 표준 통과에도 불구, 향후 필요에 따른 수정을 거쳐, 각 규격간 호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기술별로 특허사용료가 가장 높은 것은 MPEG-4이고, 상대적으로 AVS와 MPEG-2는 저렴한 상태.



특히 IPTV나 모바일방송 휴대폰 등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AVS는 중국이 로열티 지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을 진행 중인 중국 독자 기술로 중국은 공공연하게 이를 지지하고 있다.

AVS는 일반 지식과 특허기술을 결합시킨 기술로서 필요한 특허의 수는 유사 다른 국제 표준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0% 이상의 특허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제공된다는 것. AVS가 중국의 표준 규격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국제 표준규격화 조직에 제출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신식산업부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디지털 영상 시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기업의 경쟁력이 낮다"며 "중국의 디지털 영상 관련 업체들은 특허 비용의 상승과 맞물려 독자적인 혁신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디지털 영상을 포함한 중국의 전자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민이 일체가 돼 산업 발전을 도모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작년 5월 25일에는 TCL · 하이얼 · 해신 · ZTE 등 12개사를 필두로 133개 기업 · 단체가 'AVS산업연맹'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 기관에는 중국의 대학 · 연구소가 24%,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30% 비율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ABI리서치는 지난해 발간한 '중국의 IPTV'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IPTV 사업에는 장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업체는 그 근거로 중국내 통신 사업에 있어 ARPU(가입자당 매출액)가 감소하고, 브로드밴드 사용자 증가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IPTV가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한편,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 '라이센스 제도를 통한 시의적절한 사업자 서비스 개시 지연' '비즈니스 모델 미확립' 등이다.

아울러 통일된 표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브로드밴드 회선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 서비스 수준이 아직 낮다는 점 등 '기술적인 난제'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ABI 리서치는 "이러한 과제들이 단기간 해결된다면 중국의 IPTV시장은 2007년부터 급속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K